

'왕이 된 남자' 종영, 원작 지워내며 '유종의 미' 거둬



'왕이 된 남자'가 원작을 완벽히 지워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극본, 연출 배우들의 연기력, 일명 '삼합'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4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왕이 된 남자' (극본 김신덕·연출 김희원)에서 하선(여진구)은 충신 이규(김상경)와 호위무사 장무영(윤종석)을 잃었다. 하지만 신자수(권해효)와 대비(장영남)를 처단하며 이

극본+연출+배우 '삼합'이 돋보인 작품

(감독 추창민, 2012)를 리메이크한 '왕이 된 남자'는 많은 우려 속에서 첫 방송됐다. 천만 영화가 주는 부담감과 주연 이병헌의 그림자, 리메이크작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지루함을 안길 수 있는 부분들을 펼쳐내야만 했다.

작품은 이러한 세 가지 우려를 모두 지우며 첫방부터 호평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청자의 관심은 시청률로 입증됐다. 당시 '왕이 된 남자'는 시청률 5.7%(이하 닐슨코리야 전국 유료플랫톱 가구 기준)를 기록했고, 이는 tvN 역대 월화극 중 가장 높은 성적이었다. 이후 기세를 모아 시청률을 끌어올린 작품은 방송 3회 만에 8%를 돌파했다. 더욱이 종영과 함께 10.9%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기도 했다.

'왕이 된 남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극본, 연출, 배우의 '삼합' 덕분이었다. 먼저 극본은 영문(이세영)과 재희(이재민)가 함께 썼다. 영문은 이세영(이제영)과 재희(이재민)가 함께 썼다. 영문은 이세영(이제영)과 재희(이재민)가 함께 썼다. 영문은 이세영(이제영)과 재희(이재민)가 함께 썼다. 영문은 이세영(이제영)과 재희(이재민)가 함께 썼다.

어내는 데 일조했다. 먼저 여진구는 1인 2역의 성공적인 예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광기 어린 모습의 이현과 낙천적이며 밝은 하선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며 1인 2역의 부자연스러움을 완벽히 지웠다. 그중에서도 이현을 연기하는 여진구는 소름 돋는 연기력을 한껏 보여줬고, 그동안 이역배우로서 쌓아온 내용을 증명했다.

앞서 김상경은 '왕이 된 남자'를 두고 '여진구의 '인생작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바 있다. 그의 확신이 현실이 됐을 정도로 여진구의 존재감은 시청자에게 확실히 각인됐다.

이세영 역시 안정적인 연기력을 기반으로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종전의 모습을 소화해냈다. 또 하선 등의 로맨스를 통해 풋풋함과 절절함 등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상경은 이현과 하선의 사이에서 복잡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윤종석 역시 충직한 호위무사를 연기하며 마지막까지 하선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선미, 신곡 '누아르' 7개 음원차트 1위



가수 선미의 신곡 '누아르(Noir)'가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4일 발매된 선미의 신곡 '누아르(Noir)'가 발매 이후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선미의 신곡 '누아르(Noir)'는 5일 오전 9시 기준 음원 사이트 지니뮤직, 빅스 엠넷, 소라바다,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몽키3 뮤직 등 총 7개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멜론에서는 2위를 기록 중이다.

선미의 신곡 '누아르(Noir)'는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와 드럼 베이스가 조화되는 일렉트로닉 레트로 댄스(Electronic Retro Dance)곡이다. 선미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곡 전개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미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음악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신곡 '누아르(Noir)'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미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팔색조매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선미 작사, 프로듀서 EL CAPITAN과 선미가 공동 작곡한 '누아르(Noir)'는 자신의 관심사 속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하는 선

미의 섬세하고 독특한 감성이 완성해 낸 선미만의 작품이다.

특히 선미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누아르(Noir)'를 개성 있는 연출로 표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신곡은 음악과 영상을 서로 다른 해석과 표현을 통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뮤직비디오와 아티스트 선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선미는 지난 2017년 8월 소속사 이적 후 첫 싱글 '가시나'를 발매해 흥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1월 싱글 '주인공'으로 실력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발매한 미니앨범 'WARNING(워닝)'의 타이틀곡 '사이렌(Siren)'이 모든 음악 차트의 실시간/일간/주간/차트를 모두 휩쓰는 퍼펙트 윌킵을 기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음악 방송 6관왕을 수상하는 등 각종 기록을 쌓으며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선미는 첫 월드 투어 2019 선미 THE 1ST WORLD TOUR [WARNING]의 첫 지역으로 지난 24일 성황리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에 이어 1차 오픈한 뉴욕, LA, 토론토, 캘거리 등 북미 4개 도시의 티켓을 매진시키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다른 지역들도 매진 압박을 알려 멕시코 지역이 1차 지역에 추가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선미는 지난 4일 신곡 '누아르(Noir)'를 발표하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살림하는 남자 시즌2, '설정냄새' 나지만 진정성이 살렸다



KBS 2TV '살림하는 남자 시즌2'는 가히 이 시대 최고의 시트콤이라 할 만하다. 정작 시트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드라마들이 힘을 못쓰는 가운데 리얼리티 관찰예능인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연일 웃음을 선사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리얼 예능과 시트콤은 상극이다. 시청자들이 리얼 예능에 원하는 것은 리얼리티인데, 시트콤은 작위적으로 웃기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 예능이 시트콤 같으면 '폭망'이 필연이다. 과거에도 리얼 예능에서 설정 느낌이 나타났을 때 비난이 폭주했다. 국민예능이라던 SBS '패밀리가 떴다'도 참똥똥이 설정, 대본 논란 등으로 침몰했을 정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림하는 남자 시즌2'는 대놓고 설정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차라리 시트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인기를 구가한다. 리얼함이 생명이라는 리얼 예능의 법칙에서 벗어난 화제 사이다.

그 중심에 김승현 가족이 있다. 제목은 '살림하는 남자'지만 김승현이 본가의 살림을 하진 않는다. 김승현의 아버지, 딸, 남동생도 마찬가지다. 김승현의 어머니에게 살림을 '몰빵'하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이다.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시청자는 개의치 않는다. 이 가족의 일상이 '큰 웃음' '빅 재미'를 팽팡 터뜨려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캐릭터가 선명하고 매력적이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성격이 작가가 작성하고 만든 드라마 캐릭터보다 더 극적인 것이다. 김승현의 아버지는 말끝마다 '공산 김씨'를 내세우는 전형적인 거부장모로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특이한 호칭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에게 굴욕을 당한다. 김승현의 어머니는 한평생 광산 김씨 시대에 짓눌려 살며 집안 대소사를 챙긴 며느리이자 어머니로 가끔 한을 폭발시키지

다시 시작된 '마블 천하'

늘 예상 이상,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낸다.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상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우주까지 찢어 버리는 '마블'이다. 2019년 3월, 다시 시작된 마블 천하에 관객들은 신났고, 한국 영화들은 으레껏 눈치를 보고 있다.

6일 개봉하는 '캡틴 마블'이 스크린 싸움에 나선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공식 개봉을 이틀 앞둔 4일 오전 '캡틴 마블' 예매율은 87.7%를 자랑하고 있다. 예매 관객수는 이미 32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 예매율이 치솟으니 극장은 관을 열 수 밖에 없다. 마블의 스크린 점령은 이미 시작됐다.

개봉 일주일 전 10만 장을 돌파하며 돌아온 '마블 천하'의 서막을 연 '캡틴 마블'은 2019년 첫 마블 작품이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전조전으로 예고되며 관객들로 하여금 티켓을 끊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나리움을 완성했다.

또 마블의 첫 여성 솔로 영화라는 점도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시키고 있는 포인트. 일각에서는 '캡틴 마블' 보이콧 운동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90%에 육박하는 예매율은 '캡틴 마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는지 확인케 한다.

'캡틴 마블'은 기억을 잃은 과일맛 캡틴 캡틴(브리 라슨)가 월드 요원 닉 퓨리(사무엘 L. 잭슨)를 만나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캡틴 마블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MCU 최초로 90년대를 배경으로 그려낸 어벤져스 프리퀄 격이라 할 수 있다. 마블의 차세대 히어로 캡틴 마블의 탄생은 물론, 다른 MCU 영화들의 연결고리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6일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확정지어 흥행 기세가 더욱 웅망하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음력 1월 30일)

<p>▶띠띠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잊을수록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4, 7, 11월생 일하는 사람과 하는 일이 일치 안 되니 생업이 힘들구나. 그러나 인내로 꾸준히 정진하면 당신의 뜻을 알고 도우며 따를 사람 있겠다.</p>	<p>▶띠띠 노력보다 득이 적으니 심신이 피로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찬사받을 수 있다. 문서관계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음을 알라. 2, 7, 11월생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살상시키지 말 것. 피해 볼 수 있다.</p>	<p>▶띠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는 법.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 남에게 얽매어서 살아 보려는 것은 잘못된 처세임을 알라.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재도전할 때. 북, 동쪽에서 도움 손길 올 듯.</p>
<p>▶띠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었던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해 보아야 진실을 알 수도 있고 중요성을 알게 된다. 잔피 부리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될 듯. ㄱ, ㄷ, ㅅ 성씨 하는 일 힘이 든다.</p>	<p>▶띠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감정대로만 처신한다면 모든 일이 엉키는 법. 본인의 일이 아니면 참견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앞길 행겨라. ㄴ, ㅈ, ㅊ 성씨 복쪽 및 늦어지겠다. 행색을 가까이 할 것.</p>	<p>▶띠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후운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남의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필요할 때이니 신중 기하라. ㄱ, ㅈ, ㅊ 성씨 자기 있게 정진할 때. 개구리가 울소리는 것은 후퇴하려 함이 아닌 전진의 준비이니 그 이치를 알라.</p>
<p>▶띠띠 어떤 극한 상황에도 침착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감정대로만 처신한다면 모든 일이 엉키는 법. 본인의 일이 아니면 참견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길 행겨라. ㄴ, ㅈ, ㅊ 성씨 복쪽 및 늦어지겠다.</p>	<p>▶띠띠 성공함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를 백분 활용해서 추진하면 지금의 곤경을 이겨낼 듯하다. ㄱ, ㅈ, ㅊ 성씨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변동하지 마라. 힘에 겨워 쓰러질 듯하나 길이 서서히 보임을 알고 재도전함이 좋을 듯.</p>	<p>▶띠띠 주어진 일에 전념해야 할 때다. 오가는 말에 동요돼 허황된 생각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임을 알라. 현재 힘들더라도 부분간의 지혜와 승리가 필요할 때. 1, 5, 9월생 새롭이 시작할 것 인내하며 노력할 때 서광이 비친다.</p>
<p>▶띠띠 아무리 혼자서 공을 세웠어도 주위에 보좌가 없으면 무용지물. 훌륭한 스승 밑에는 유능한 제자가 있기 마련임을 알라. 애정 문제는 결단이 요구되니 3, 8, 11월생 둘 다 잡으려 말고 하나로 결정할 것.</p>	<p>▶띠띠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간의 정성이 서서히 이루어져 조급씩 승산이 보인다. 생각하는 일 순리대로 행하면 서서히 이루어질 듯. 2, 8, 11월생 마음 급하다고 가는 말에게 채찍질하지 마라.</p>	<p>▶띠띠 힘든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할 때 손해가 적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ㄴ, ㄷ, ㅅ 성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죽도록 따르는 격. 성공한 판단은 금융.</p>